

도시 근교 농촌마을 경제활동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사례

고경호* · 김태연**

A Study on the Divergence of Economic Activities between Rural Villages in Rural-Urban Areas : The Cases of Two Villages of Seojong-Myeon in Yangpyeong County

Ko, Kyung-Ho · Kim, Tae-Yeon

The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ies of two rural villages near the city. It is the general notion that rural villages near large cities los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rural villages and change the areas with urban characteristics due to the influence of urbanization. The survey also showed that Munho 4-ri and Jeongbae 1-ri in Gyeonggi-do have urban characteristics, such as population growth, agricultural activity reduction and non-agricultural activity increase, and community activity reduction. However, they also found that there were important differences in the future development patterns of the two villages. In other words, the reasons and purposes of migration of people moving to the two villages, the differences in the system of economic activity in the villages, and the differences in community cooperation are emerging. Therefore, the study shows that policies to develop rural villages near cities need to be implemented different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villages.

Key words : *rural-urban fringe, rural development, economic activities, co-operation, participation, capacity building*

* 제1저자,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khko0419@dankook.ac.kr)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tykim@dankook.ac.kr).

I. 서 론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촌마을 개선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우리나라 농촌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촌마을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마을에는 도시와 농촌적인 요소들이 혼재되는 현상과 농민 위주의 주민 구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혼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여러 연구(Park et al., 2001; Cho et al., 2010)에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의 불도저식 농촌개발이나 획일적인 마을정비 방식을 통해서 도시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새롭게 농촌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Park et al., 2001).

농촌의 변화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Yoon, 1999; Lee, 2001)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지리적 연속성을 띠는 인접한 도시의 영향으로 지가 상승 및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 수용의 압력에 시달리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 요구에 놓여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많은 인구의 유입에 의한 주택개발과 산업시설의 유입으로 인해서 토지이용 및 경관의 변화 그리고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 전형적인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도시와 농촌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있는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기존 주민 간의 갈등, 주민의 양극화, 농업 주도적인 마을 공동체의 약화 등이 나타나면서 농촌공동체로서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주민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도 동반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농촌지역에서도 경제활동의 내용과 주체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도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도시 근교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정책이나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농촌마을이 도시적인 특성으로 변화하는 것을 마을발전이라고 인식하는 일반적인 인식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근교 농촌마을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농촌마을이 주로 낙후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고 있는 도시 근교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마을발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도시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고정관념 하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농촌지역의 변화가 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현재 도시 근교 농촌마을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마을의 변화방향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농촌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단위가 농촌마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농촌마을별로 경제활동 수행 상황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농촌마을 발전정책도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 근교 농촌마을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이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책적 고려가 적용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서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문호 4리와 정배 1리를 사례로 해서 이들 마을의 경제활동 관련 상황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 근교 농촌마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농촌연구 분야에 마을별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 개요

1.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농촌마을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에 대한 연구들과 산업사회 농촌마을에 대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농촌마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윤희 외(Park, et al., 2001)는 농촌사회가 폐쇄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여기에 윤원근(Yoon, 1999)과 이상문(Lee, 2001)의 연구에서는 마을에 일정한 신분적 위계질서를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정한 사회적 강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 간의 협력과 참여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사회 농촌마을에 대한 연구(Yoon, 1999; Lee, 2001)에서는 개별적인 영농활동이 중심이 되면서 공동체적 강제와 협력은 희박해 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별적인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능적인 협력으로 변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Kim, 1988).

또한 최근 이루어진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로는 조영재 외(Cho et al., 2010)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충남 아산시의 15개 마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마을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근교 농촌마을들의 경관이 파괴되고,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과 관련해서 이 연구는 보다 상세한 마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그 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촌마을을 과거 사회적 관습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관계가 해체되고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협력이 중심을 이루는 공간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촌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들은(Lowe et al., 1998)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정책적 지원의 중심을 두고 있다(Shucksmith, 2010). 이러한 논의와 함께 새로운 농촌개발 방법으로 신내생적 발전론을 제시하고 있다(Ray, 2001; Kim & Lowe,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 근교 농촌마을을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마을 발전을 해석해 왔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마을 내 주민들 간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다. 즉, 두 마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향후 마을 발전의 패턴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이 연구는 서울 근교 농촌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두 인접마을 문호 4리와 정배 1리를 사례로 2017년에 조사한 연구이다. 이들 지역은 양평에서도 대표적으로 도시민의 유입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문호 4리의 경우는 ‘리버마켓’이라는 상업적인 활동이 도입되어 마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으로 언론에 소개된 마을이며, 정배 1리는 문호 4리와 인접한 마을이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 발전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이므로 이 연구에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유사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 두 마을의 경제적 활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두 마을의 특성과 변화과정, 현재 추진 중이거나 모색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실태와 변화, 현재 도시 근교 농촌마을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6차 산업화, 산지혁신 등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와 검토를 수행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보아 같이 조사는 크게 사례마을의 일반현황과 마을의 경제현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마을 일반 현황 분석에서는 지역의 인구 구성, 마을의 주요 자원, 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각 사례 마을의 인구특성과 그 동안의 마을의 변화 추이, 마을의 자산 및 인프라, 마을주민의 주요 경제활동 및 소득 구조와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마을의 경제현황 분석에서는 사례마을이 지닌 농업활동의 특성과 영농양식, 비농업 경제활동의 특성과 변화과정,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 연구를 위해서 사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와 현지 관찰조사, 이장 등 마을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심

층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Table 1. The survey items

	Survey items	Details
General situation of village	General Characteristics	- Demographic features - The changes of villages
	Assets and economic facilities	- Main village assets - Economic facilities
	Economic circumstance of residents	- Main economic activities - Income structure - Spending Structure
Economic circumstance	Agricultural activities	- Main Agricultural Activities - Changes in Agricultural Activities
	Trial of changes in farming method	- Recent trials
	Non-agricultural activities	- Current business situation - Characteristics in non-agricultural activities
	Community-based economic activities	- 6th industrial activities of village - Other social economic business

Ⅲ. 마을의 인구 특성 비교

1. 인구변화 개요

문호 4리와 정배 1리는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해 있으면서 대도시인 서울과 인접해 있는 뛰어난 접근성, 양호한 교통 환경, 북한강변을 따라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경관 등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마을이다. 두 마을은 서로 인접해 있지만 인구 및 가구 수 면에서는 문호 4리가 정배 1리에 비하여 약 2.5배 이상 크다.

이들 두 사례마을의 인구 변화를 보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약 5% 가까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호 4리의 경우 2017년 12월 현재 총 인구 수가 1,200명으로, 2005년 657명에 비하여 82.6%가 증가하였다. 정배 1리도 총 인구가 427명으로, 2005년 265명에 비하여 61.1%가 늘었다. 이 가운데 귀농·귀촌가구 수는 전체 가구 대비 정배 1리가 문호 4리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Yangpyeong, 2017).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호 4리의 귀농·귀촌가구 수는 총 가구 수의 23%인 125가구이며 정배 1리의 경우는 총 가구 수의 77.7%인 150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 중 귀농가구는 문호 4리 5가구(3%), 정배 1리 20가구(13%)로, 정배 1리가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귀농·귀촌 인구 중에는 귀농보다는 전원생활을 추구하려는 은퇴자들이나 인접 대도시인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근자들 또는 자식들의 교육 목적으로 귀촌한 인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좋은 문호 4리보다 정배 1리로의 이주 가구가 많은 것이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이주 목적이 단지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매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주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마을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문호 4리의 경우 총인구 1,200명 중에 20세 미만이 15.2%, 20~60세 미만이 54.8%, 60세 이상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형 인구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배 1리의 경우도 총인구 427명 중 20세 미만이 18.3%, 20~60세 미만 청장년층은 49.4%, 60세 이상은 32.4%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호 4리와 유사한 다이아몬드형의 분포이지만 상대적으로 다소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배초등학교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20세 미만 유소년의 비율이 높고 또 60세 이상의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0~9세 인구 비율이 11.5%로 문호4리 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circumstance of the villages (2017)

(unit : person, household)

Villages		Munho 4-ri	Jeongbae 1-ri
Total population / Households		1,200 / 542	427 / 193
Returning households (Farming / Total)		5 / 120	20 / 130
By age (person)	Under 20	182 (15.2%)	78 (18.3%)
	20 - 40	241 (20.0%)	65 (15.2%)
	40 - 60	417 (34.8%)	146 (34.2%)
	over 60	360 (30.0%)	138 (32.3%)

Source : Questionnaire survey data from village leaders in 2017.

2. 귀농·귀촌 가구의 특성

현지 이장 및 주민들과의 면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두 마을의 귀농·귀촌 추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문호4리의 경우 인구 유입 초기에는 노·장년층 은퇴자들의 거주 목적으로 귀촌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서울로의 접근성(강남 기준 30분대)으로 인

해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의 유입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가도 상승하여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한 후 주택을 짓고 전/월세로 임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문호4리의 전원주택 수는 약 350여 채로 과거 5년 간 120여 채가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호 4리의 귀농·귀촌가구의 특징은 서울로의 우수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통근을 목적으로 하거나 서울과 양평 두 지역에 동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귀촌가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정배 1리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가구의 특징은 자녀들의 교육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지 이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전원 속 특성화 학교인 정배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주로 서울에서 이주해 온 젊은 부부들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배 1리 마을이 문호 4리에 비해서 귀농가구 수뿐만 아니라 귀촌가구 수도 많다는 것은 이들 젊은 부부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경제적인 소득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은 이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한 것은 이들의 삶의 지향과 인식이 기성세대와는 달리 삶의 질이나 웰빙 그리고 자녀에 대한 대안교육을 동시에 병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서종면 전체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의 약 83%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삶의 질을 향유하려는 이주민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공통점과 차이점

위와 같이 두 사례마을의 인구 변화 및 특성을 살펴보면, 일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공통점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5% 내외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귀농보다는 귀촌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귀촌인구의 상당수가 서울의 일터로 출퇴근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인접도시인 서울과의 접근성과 양호한 교통 환경, 우수한 자연경관 등이 귀농·귀촌인들을 유인하는데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 유입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두 사례 마을 간에는 몇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문호4리가 정배 1리에 비하여 전체적인 인구 수와 증가율이 높은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이나 교통 편리성, 북한강에 접해 있는 자연경관 등에서 우위에 있고, 특히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자가치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배 1리의 경우 문호 4리에 비해 내륙 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자연경관이나 교통 편리성 등에서 열위에 있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가구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시골 작은 학교의 특성화 모델로 부각된 정배초등학교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폐교 위기에 있었던 정배초등학교에 대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성과가 지역 유입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배초등학교는 1994년 졸업생을 끝으로 서중초등학교 정배분교로 격하되면서 자칫 폐교될 위기에 처했으나, 주민들이 앞장서서 정배초등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자연친화적이고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2005년 신입생이 6명에 불과하던 이 학교는 2018년 현재 90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정배초등학교로 재승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두 사례마을의 인구 변화와 관련하여, 문호4리의 경우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나, 정배 1리의 경우는 정배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역귀촌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서 인구 증가율이 정체 또는 소폭 증가 정도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V. 마을의 경제활동 특성 비교

1. 경제활동 변화 개요

사례마을의 경제활동 변화 과정을 보면, 문호 4리의 경우 본 마을을 포함한 5개의 자연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1980년대까지는 농업활동을 수행하였으나, 1991년 마을 토지의 대부분이 준농림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외지인들이 대거 토지를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마을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외지인들의 토지매입이 늘어나면서 지가상승이 발생하였고, 농지는 ‘토지전용 허가’에 대한 특례사항과 ‘연접개발제한제도’ 등의 폐지로 인하여 전용이 용이하게 되면서 대거 전원주택지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지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마을 전체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었다. 이주민들 중 상당수는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여 카페나 식당, 모텔, 펜션 등 상업 활동을 영위하였으며 현지 토착주민들도 농업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부분 전업하였다. 현재 문호 4리는 자영업 을 위주로 하는 비농업부문 종사자와 서울 출퇴근 귀촌인, 세컨드하우스 주민들의 거주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민은 전체 마을 인구 대비 약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었던 문호 4리와는 달리 정배1리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산골마을이다. 고령박씨 집성촌으로 과거에는 전통적인 소규모 농업활동이 주요 경제활동이었으나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진행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소규모 농업활동이 자급자족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배초등학교 입학 을 위해서 이주한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전원주택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마을을 대표하는 경제활동은 없지만, 이 마을을 통과하는 차량과 관광객 또는 자전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레스토랑, 카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근교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이 진행되면서 두 마을에서 모두 농업인구가 현저히 감

소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문호 4리는 경제활동을 위한 인구유입이 증가하였지만 정배 1리의 경우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비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부문별 특성 비교

1) 마을 자산 및 경제 인프라

문호 4리와 정배 1리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마을 모두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북한강변에 인접해 있다는 것과 서울과의 양호한 접근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자산이나 인프라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두 마을 모두 주민 각자의 개별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마을 공동체가 조성한 경제 인프라나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소유, 관리되는 토지 등 공동의 자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두 사례마을의 경제활동 기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3. The assets and public infrastructure in the villages

Villages	Munho4-ri	Jeongbae1-ri
Community facilities	Village hall	Village hall
Schools	Elementary / Middle	Elementary
Medical facilities	Health care centre	-
Natural and landscape assets	Bukhangang river	Bukhangang river
Tourist assets	River market	-
Commercial businesses	300	80
Other common assets	-	- Drying facility - Rice processing factory

Source : Survey data

문호 4리의 경우 상업·관광 자원으로 북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다양한 개인 상업시설과 북한강변 공터에서 월 1회 정도 개최되는 특화시장(리버마켓)이 운영되고 있다. 개인 상업 시설로는 마을로 이주한 외지인들 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 등 상점과 모텔, 카페, 펜션 등 약 300여 곳이 존재한다. 이 상업시설의 이용자들은 자전거 동호회, 캠핑족, 등산객 등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대부분이다.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리버마켓¹⁾은 북한강변로 옆에 위치한 다목적 광장에서 보통 한 달에 1~2회, 주말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개설되고 있다. 초기에는 서종면 주민들과 문호4리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다가 현재는 문호리 주민 20%, 양평군 주민 40%, 인근 기타 지역에서 40%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버마켓이 최근 양평 관광의 주요 코스로 언론과 방송 등에 소개되면서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약 1~2만 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문호 4리 주민들이 주도해서 개최되기보다는 별도의 마켓 운영진이 참여자들과 함께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 사업을 간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운영 주체 중 마을 주민이 극소수라는 점, 리버마켓을 둘러싼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고소, 고발, 민원 등이 발생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마을의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마을회관과 교육시설인 서종초등학교와 서종중학교 그리고 의료시설인 서종보건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반면, 정배 1리의 경우 유입된 외지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펜션 등 약 80여 곳의 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문호 4리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이다. 마을 공동 자산으로는 건조장과 정미소가 각각 1개씩 있으나 현재는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마을회관 1개소와 교육시설인 정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2) 가구 소득 비교

사례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과 관련하여, 두 사례마을 모두 대부분의 소득을 농업 소득이 아닌 비농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활동이 가구 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두 마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가구 총수입에 대한 분포에서 문호 4리의 경우 1,000~2,000만원 소득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정배 1리는 5,0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비율도 정배 1리가 문호 4리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다.

조사결과를 Table 4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호4리의 경우 연 소득 1,000만원~2,000만원이 2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00만원~3,000만원 21.3%, 500만원~1,000만원 14.9%, 3,000만원~4,000만원 12.8%, 5,000만원 이상 10.6%, 4,000만원~5,000만원이 8.5%, 0~500만원 6.4%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배 1리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이 2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00만원~2,000만원과 500만원~1,000만원이 각각 17.2%, 0~500만원 15.5%, 2,000만원~3,000만원 13.8%, 4,000만원~5,000만원 8.7%, 3,000만원~4,000만원 6.9% 순으로 나타났다.

1) 이 연구의 조사시점인 2017년에는 리버마켓이 문호리와 여주에서 개설되고 있었으나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Table 4. Total Household Income of the villages

(Unit : %, Million won)

Villages	Household Income							Share of non-farming income
	5 less	5-10	10-20	20-30	30-40	40-50	50 higher	
Munho4-ri	6.4%	14.9%	25.5%	21.3%	12.8%	8.5%	10.6%	70.2%
Jeongbae1-ri	15.5%	17.2%	17.2%	13.8%	6.9%	8.7%	20.7%	63.3%

Source : Survey data

또한 Table 5에서 보는 것처럼, 가구 총소득 중에 농업소득의 비중은 문호4리의 경우 500만원 미만인 17.0%, 1,000만원 미만인 12.8%이며 70.2%는 농업소득이 전혀 없이 비농업 부문에서 모든 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배 1리의 경우는 농업소득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63.3%이며 500만원 미만인 19.0%, 1,000만원 미만인 17.2%로 농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소득 구간도 1,000만원 미만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구 총수입 분포에서 정배 1리의 주민들이 문호 4리 주민들에 비하여 연 5,000만원 이상 고소득 비율이 높은 것은 정배 1리 주민들의 임금 기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5. Farming income proportion in the total household income

(Unit : %, Million won)

Villages	Farming income							
	0	less 5	5-10	10-20	20-30	30-40	30-40	50 higher
Munho4-ri	70.2%	17.0%	12.8%	0.0%	0.0%	0.0%	0.0%	0.0%
Jeongbae1-ri	63.8%	19.0%	17.2%	0.0%	0.0%	0.0%	0.0%	0.0%

Source : Survey data

한편,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호4리 주민들의 주요 경제활동은 자영업과 임금노동자 주민 비율이 75.7%인 반면, 순수 농업종사자는 6.5%로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배 1리의 경우도 주민들의 주요 경제활동은 자영업과 임금노동자 주민 비율이 70.3%, 순수 농업종사자는 20.7%로 이 마을 역시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정배 1리의 비농업부문 종사자들의 37.8%가 타 시·군에서 임금 기반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문호 4리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문호 4리에 비해 서울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배 1리가 문호 4리보다 타 시군 소재 직장 비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특성화 학교

인 정배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높은 교육열을 지닌 젊은 학부모들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함께 문호 4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대/임대료도 임금 기반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귀농·귀촌인들을 유입시키는 주요 원인이 라고 할 수 있다.

Table 6. Main economic activities of residents

Villages	Farming	Self-Employment	Wage workers
Munho4-ri	6.5%	43.0%	32.7%
Jeongbae1-ri	20.7%	17.9%	44.8%

Source : Survey data

가구 소득 변화와 관련하여, 두 사례마을 모두 임금 소득 증가가 가구 소득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의 소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호 4리의 경우 임금노동에 의한 소득증가가 10.6%로 소득 증가원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소득 감소원으로는 비농업부문 사업소득의 감소가 29.8%로 가장 높았다. 정배1리의 경우 소득 증가의 원인으로 임금소득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감소 원인으로 비농업 사업 소득이 19%로 소득 감소원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과 관련하여, 문호 4리 주민들의 경우 소비지출 항목 중 의료비 비율이 생활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배 1리 주민의 경우 생활비 다음으로 주거비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문호 4리에 비해 정배 1리의 주거비가 높은 이유는 문호 4리와 달리 수도와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특이한 점은 문호 4리 주민들의 소비 지출 항목 중 부채상환비율은 10.6%로, 정배 1리 1.7%에 비해 약 9배 가량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정배 1리가 문호 4리에 비해 지대가 저렴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 주택 구입 및 임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농업활동 비교

문호 4리와 정배 1리의 농업활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농업인구 및 농업활동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마을의 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호4리의 경우 자영업의 비율이 다른 경제활동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43.0%이며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인구는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을은 19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이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용도계획이 변경되어 토지전용이 용이해 지면서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거 전원주택지가 개발되고 상당의 토지에 카페나 식당, 모텔, 펜션 등 상업활동 시설이 들어오면서 농지 축소 및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유입 인구 중 귀농 인구 보다는 자영업과 임금노동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귀촌인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농업은 경제활동으로서의 유의미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귀촌인구의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배 1리의 경우도 자영업의 비율이 17.9%로 다른 경제활동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농업인구 비율은 문호 4리에 비하여 3배가량 높은 20.7% 가량인데, 이것도 20여 년 전에 비하면 거의 60% 이상이 감소한 것이다. 현재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인구의 대부분은 자급자족형 소농이며 밭농사와 쌀농사의 비율이 각각 25.5%, 21.4%, 축산업 3.4%, 시설원예 농업 2.8%로 나타났다. 영농면적은 최근 5년 전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가 없었으나, 농업 매출액은 5년 전 평균 516만원에서 410만원으로 20% 가량 감소하였다. 향후 농업 활동에 대한 자기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Table 7. The income earning activities of the residents of the villages

(Unit : %)

Villages	Munho4-ri	Jeongbae1-ri
Farming	6.5	20.7
House wife / Students	24.3	34.5
self-employment	43.0	17.9
Unemployed	11.2	4.8
Business management	5.6	3.4
Manufacturing	1.9	3.4
Marketing	4.7	2.1
Engineering	0.9	4.1
Freelancers	1.9	0.7

Source : Survey data

4)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비교

마을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두 사례 마을 모두에서 그동안 전승되어 온 두레, 품앗이 등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은 오래전에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까지 농가·마을·지역 단위의 6차 산업화 등의 경제활동도 마을단위에서 시도된 적이 없으며 향후 계획도 전무한 상태이다. 영농방식과 관련하여, 마을 공동작업이나 위탁영농 의지를 가진 농업인도 역시 전무한 상태이다. 문호 4리의 경우 사실상 농업이 경제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농업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의 가능성은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배 1리의 경우도 대부분의 농업인구들이 농업 관련 다른 경제활동 의향이 없으며 만약 기회가 주어질 경우 개별적으로 ‘직거래 및 직판장 운영’ 의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마을

단위로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영농방식과 관련해서도 두 마을의 모든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농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 공동작업이 수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5) 비농업활동 비교

문호 4리와 정배 1리의 경제활동은 주로 소규모 농업과 상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제조업과 같은 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문호 4리의 경우 북한강변을 끼고 형성되어 있는 도로변에 자연경관을 보러오는 외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과 모텔이 형성되어 있고, 도로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일부 펜션들이 위치해 있다. 정배 1리의 경우도 중미산으로 이어지는 352번 국도변을 따라 일부 펜션과 카페 등이 영업 중이다.

Table 8. The main income earning activities of the non-farming households of the villages

Villages	Self-employees	Full-time worker	Daily worker	Temporal worker	Unpaid family worker
Munho4-ri	61.3%	16.1%	3.2%	4.8%	14.5%
Jeongbae1-ri	55.6%	26.7%	8.9%	6.7%	2.2%

Source : Survey data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농업활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두 사례마을 모두 귀촌인 중심의 자영업과 임금 노동자 기반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조사결과, 문호 4리의 경우 비농업 가구의 주요 경제활동의 고용형태는 자영업이 61.3%, 상용직 임금노동자 1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배 1리의 경우도 비농업가구의 경제활동 고용형태는 자영업이 55.6%, 상용직 임금노동자 26.7%로 조사되었다. 두 사례마을의 비농업 경제활동 중 자영업의 경우는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아닌 외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임금기반의 경제활동은 서울 또는 기타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자영업의 고용과 관련하여, 규모가 큰 식당이나 모텔들의 경우 마을 주민들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외부 인력회사를 통한 고용이 더 일반적인 경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 주민을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사용되는 식자재는 가격 및 수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유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 연구는 서울 근교 농촌지역인 서종면의 문호 4리와 정배 1리의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특성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시 근교 농촌지역인 두 마을의 공통적인 측면과 동시에 서로 차별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먼저, 공통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이면서도 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귀농귀촌 가구로 대표되는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호 4리의 경우는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을 위해서 이주하거나 레스토랑, 카페, 펜션 등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이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정배 1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자식 교육을 목적으로 이주하거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기 위해 이주하는 가구들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주는 이유는 다르더라도 도시발전 시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농업활동이 감소하고 비농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의 발전은 대부분 농업활동의 감소를 동반하는 것인데, 두 마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발전이 따른 토지관련 법규의 변화와 용도변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다른 사업 기회들이 지역에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비농업 중심의 경제로 변화되는 것이다. 셋째, 앞서 설명한 농업활동의 감소와 연결되는 것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해체되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활동의 감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공동활동과 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업활동이 감소하게 되면서 기타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도 감소되고 농업용으로 설치된 공동시설에 대한 이용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는 사실상 농촌마을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촌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의미인 상황에서 문호 4리와 정배 1리에서 공통적으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지역이 더 발전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마을의 변화과정에서 향후의 발전과정이 다르게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차별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 근교 농촌지역이 동일한 패턴의 발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마을의 지리적 위치상의 차이로 인해서 이주 인구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문호 4리로 이주하는 인구들은 주로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거나 또는 이미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고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이주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이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호 4리의 향후 발전

경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될 것이고 따라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와 정체성이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반면, 정배 1리로 이주하는 인구들은 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비경제적인 측면에 이주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배 1리 이주민들 간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향후 이 마을의 발전이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의 요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 시스템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문호 4리의 경우는 상업적인 활동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의 사업적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마을 경제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재료와 고용 측면에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마을 내 경제활동 시스템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나타나거나 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오히려 마을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배 1리의 경우는 마을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 대한 의존성이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활동도 주로 소규모 자급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외부 취업에 의한 임금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내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마을의 발전 과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호 4리와 같은 활발한 경제활동이 마을 내에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견고한 토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마을 주민 간의 협력적 활동 수행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문호 4리의 경우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주민 간의 협력이 매우 미진하고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매우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을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리버마켓에 대해서도 운영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마을의 여러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협력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배 1리는 정배초등학교 살리기라는 운동을 통해서 주민들 간의 협력적 활동을 기반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협력적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는 주민들 간의 협력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정배 1리가 오히려 더 바람직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도시 근교 농촌마을의 특성들은 전체적으로는 도시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의 특성과 마을 내의 경제적 사회적 협력 체계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시 근교 농촌지역들은 주로 도시적인 특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대부분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 또는 정책담당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 우리나라 도시 근교의 농촌마을은 경제적으로 매우 다른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농촌지역에

적용되는 정책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하지만, 근교 농촌마을의 경우에도 단순히 도시적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으로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농촌마을의 특수한 자원과 배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일반적인 지역발전정책에서도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도시 근교 농촌마을에서도 그 세부적인 특성에 적합한 차별적인 농촌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Submitted, July. 31, 2019 ; Revised, August. 17, 2019 ; Accepted, August. 22, 2019]

References

1. Cho, Y., D. Chang, J. Yoon, and J. Park. 2010.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lanning of Rural Areas in Nearby Urban - Focused on Asan City, Chungnam, Chungnam Institute.
2. Kim, I. 1988. "The Changes in Rural Social Organization with Decreasing Rural Population", Ch. 2, in Basic Study on the Direction of Agricultural Policy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 Kim, T. Y. and P. Lowe. 2012. Operationalising the Concept of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n Alternative Method Responding to Globalisation. *Space and Environment*, 22(1): 114-160.
4. Lee, S. 2001. The Change of Communal Space Function in Korean Rural Settlements after 1970s, *The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36(1): 7-23.
5. Lowe, P., C. Ray, N. Ward, D. Wood, and R. Woodward. 1998. Participation in Rural Development: A Review of European Experience, Centre for Rural Economy Research Report, Centre for Rural Economy,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6. Park, Y., Y. Jeon, S. Lim, S. Lee, D. Uhm, E. Jang, S. Oh, and J. Lim. 2001. A Study on Policy for Characterization of Rural Villages, Rural Research Institute,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7. Ray, C. 2001. Culture Economies. CRE press, Centre for Rural Economy,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Newcastle upon Tyne.
8. Shucksmith, M. 2010. Disintegrated Rural Development? Neo-endogenous Rural Develop-

- ment, Planning and Place-Shaping in Diffused Power Contexts. *Sociologia Ruralis*, 50(1): 1-14.
9. Yangpyeong County. 2017. Yangpyeong County Statistics 2017, Yangpyeong County.
 10. Yoon, W. 1999. Theory of Rural Planning in Korea, Daehak.